

일주문



부사학원 재개결연 25주년... 청담학원 설립자 혜성 스님은 일본 부사학원과 재개결연 25주년을 맞아 부사학원에서 1월 17일 열린 기념식에 청담학원 교사 3명 학생 3명 등과 함께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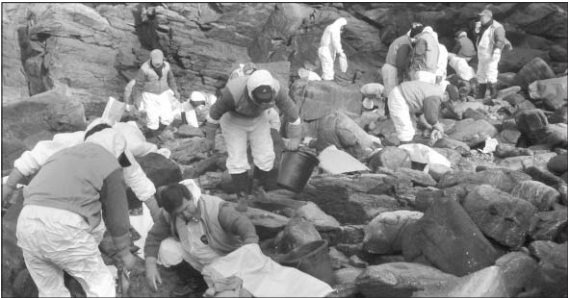


2008 사랑나눔 한마당 축제 쌀 기증... 대한불교청년연맹회 총재 현성 스님은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 하는 서대문구 희망 2008 사랑나눔 한마당 축제"에 20kg들이 쌀 80포대를 기증했다.



이사회서 기본재산 증자... 사단법인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은 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기본재산을 5000만원 증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단 기본재산은 9억5000만원이 됐다.

한국운전자불자회 태안 봉사



한국운전자불자회 대전지역회 금강지부(회장 이규상)가 1월 10일 태안 기름유출 지역을 찾아 자비행사를 펼쳤다. 60명의 회원이 동참해 바위 구석구석의 기름을 닦아내며 하심하는 시간이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연방사 노래자랑대회 개최



연방사(주지 일봉)가 1월 15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했다.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로 활동 중인 연방사 주지 일봉 스님은 노래를 통한 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날 노래자랑대회에는 가수 임부희씨가 출연해 흥을 돋웠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혜오 자원봉사 연합회 침술봉사



혜오자원봉사연합회(회장 혜오)가 1월 13일 육천 대성사에서 37사단 111연대(연대장 최경식 대령) 장병들에게 침술, 카이로프러티 기술 및 상담 봉사를 했다. 2006년부터 매월 2~4주 일요일 오후2~5시 육천 대성사에서 의료 및 법률상담 봉사를 해온 혜오자원봉사연합회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시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제4회 보현학술상 수상

금강대 안성두 교수



보현학술상 제4회 수상자로 안성두 교수(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장)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월 15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열렸다.

안성두 교수는 중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독일에서 <유가지론에 있어서의 번뇌설>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안 교수는 학술진흥재단 HK 연구사업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 단장이다. 한편 금강대 HK사업은 향후 10년간 진행될 연구로 불교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현학술상은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 산하 보현장학회에서 2004년 제정한 학술상이다. 보현장학회는 신진 불교학자 발굴을 목적으로 학술과 포교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해 매년 1회 시상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인사

조동섭 인사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월 7일 신년하례법회에서 ▲감찰국장 도현 스님 ▲조사국장 도성 스님 ▲교무부장 임우 스님 ▲문화부장 행태 스님 ▲기획실장 해능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언론 왜곡 보도 감시에 주력할 터”

종단협 초대 언론위원장 열반종 총무원장 해곡 스님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현직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일단 구성해 놓

“다채널 다매체 시대를 맞아 불교를 왜곡해 보도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감시활동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언론 포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불자 언론인과 각 종단의 스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불교를 언론에 올바르게 알리고 편파적인 보도는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언론 왜곡 보도 감시기능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1월 1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산하 언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해곡 스님(열반종 총무원장)은 향후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해곡 스님이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데에는 출가 전 한국방송공사(KBS)에서 20여년간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언론 경력이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현재 종단협 산하 각 종단에 공문을 발송해 언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계 언론인들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의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해곡 스님은 3월부터 위원회를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 조직 화합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떠날 예정이며, 수계법회와 워크숍도 마련할 생각이다. 또한 해곡 스님은 언론 감시 기능 외에도 위원들의 경력을 활용해 한국군 현대불교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선지사들의 행장을 발굴 수집해 영상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영상 매체를 통한 포교에도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각 종단들에서 주최하는 국제 행사나 법회에도 참여해 각 종단들과의 교류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해곡 스님은 현재 한·미안나 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한·스리랑카 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교사불자회 활성화 할 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창홍 신임회장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지회 결성 붐이 일어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지역 교사불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7일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에서 열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총회 및 겨울수련회에서 제5기 회장에 선출된 임창홍(56) 신임회장은 조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임기 2년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현재 성남 아담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 회장은 서울경인 교사불자연합회 회장을 오랫동안 맡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전국교사불자연합회에 쏟아 붓겠다는 각오다. 임 회장이 가장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 일은 교사불자들이 뒤편하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불자 선생님들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멋있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사불자들의 움직임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일단 생활 속에서 손목에 단주를 차고, 공양할 때 불교식으로 기도를 올리는 등의 의식 부분과 불자다운 자세를 몸에 배도록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지식 초청 법회 등의 실행 활동도 늘려갈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 교장·교감 등 교육관리직으로 지난해 구성된 ‘푸루나’ 회원이기도 하다. 푸루나는 각 학교 파라마와 각 지역 교사불자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이번에 임 회장이 교사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으로써 두 단체

태고종 선암사서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11일 태고종립 선암사에서 ‘종정예하 친견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하여 각 교구 총무원장, 각 사암 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자년 새해의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태고종단의 미래는 승가와 재가교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통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 종도가 힘을 모아 교육 불사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정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교육과 복지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선암사 주지로 선출된 경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선암사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의 결속력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 회장의 올해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재직 중인 아담고에 파라마타를 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경인 교사불자연합회를 동서남북 4개 지부로 분리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경인 지부 분리는 단체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자로서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신행부터 열심히 챙기고, 학생과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교사불자회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동산불교대학 보살계 대법회 봉행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월 12일 동산불교대학 법당에서 무진장 스님을 법사로 동산반야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자년 신년 대법회를 봉행했다. 보살계 수계사와 함께 열린 이번 법회에서는 지난 11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결로 선출된 무진장 스님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김재일 이사장은 “무진장 스님은 평생 불교를 사시며 포교에 전력하신 분”이라고 스님을 소개하며 “불자들 모두가 무진장 스님을 본보기로 수행·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진장 스님은 “보살계 수계를 위해서는 신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보살계 수계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보살(부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도들에게 보살계 수계 법문을 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이전 개소식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원장 이영숙)은 1월 10일 부산불교회관 5층에서 현판식 및 이전 개소식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총교 스님을 법사로 진행한 이번 법회에는 사부대중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육군6339부대 부대장 권행은 중령은 이영숙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광주 광산구불교협의회 신년법회



광주광산구불교협의회(회장 성오)는 1월 9일 광주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광산구 발전을 위한 신년법회’를 열었다. 정인 스님(광주사암연합회장), 전길진 광산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성오 스님은 “설가모니는 2500년 전 진리를 발견한 분이고,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분이 아니라, ‘지역 불자들이 더욱 정진하여 광산지역을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만들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안 자원봉사자에 무료급식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태안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점심급식을 무료 대접하는 일이 있다. 조동섭 무량사(주지 혜준)는 태안군 신두리에 위치한 무량사는 매일 150명분의 점심을 마련해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1월 11일 조동섭 총무원장 대은 덕우 스님을 비롯해 승정 부원장 범공, 감찰부장 덕성, 총무부장 범화, 감찰부장 해산 스님이 종단 대표로 무량사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에 동참했다. 현문 경남남부지사장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불교중흥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1월 17일 육천관광호텔에서 불교중흥대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침회 발원문 낭독 후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으로부터 “새해를 시작하는 불자의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들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여래불교문화대학 개원

1월 19일 개원한 조계종 대각회 여래사가 3월부터 여래불교문화대학을 운영한다. 하동철 불사 통공 스님을 학장으로 불교 경전 및 교리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여래불교문화대학은 불자 뿐 아니라 부처님의 사상, 철학, 불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현문 경남남부지사장